

다케노쓰지

해발 213m 의 다케노쓰지는 평탄한 지형이 대부분인 이키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. 산 정상에서는 수많은 후미와 삼림 구릉, 하루노쓰지 유적이 있는 후카에타바루 평야 등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. 맑은 날에는 쓰시마와 규슈 본토도 볼 수 있습니다.

다케노쓰지는 전망이 좋아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. 7 세기에는 쓰시마에서 이키, 그리고 규슈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‘봉화’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도쿠가와 막부(1603~1867)가 외국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에도 시대에는 근해를 오가는 선박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

현재 다케노쓰지까지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정상에 있는 전망대는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.